

본 작품들의 열람기록은 로그파일로 남게 됩니다. 단순 열람 목적 외에 작가와 울산광역시의 허락 없이 이용하거나 무단 전재, 복제, 배포 시 저작권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 울산 문화자원 스토리텔링 공모전

구 분	내 용
제목	우리 동네에는.....
수상내역	울산 문화자원 스토리텔링 공모전 최우수상
작가	김현정
소재	처용, 신화마을, 선암 호수 공원
기획의도	<p>울산에는 반구대 암각화와 고래를 제외하고도 볼 것이 참 많은 것 같다. 역신과 관련된 이야기가 전해지는 동해 용왕의 아들 처용이 처음 올라섰다는 처용암이며, 아름다운 벽화가 가득한 신화마을, 그리고 선암 호수 공원 안에 세상에서 가장 작은 교회와 성당, 사찰까지.</p> <p>그들이 간직한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엮어 한편의 스토리텔링을 해볼까 한다.</p>
등장인물	<p>소망    아픈 할아버지를 위해 매일 기도를 드리는 신화마을에 살고 있는 어린 소녀.</p> <p>처용    동해 용왕의 아들로 한때는 역신으로부터 사람들을 지켜주었으나 현재는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히고 처용암에서 잠을 자고 있다.</p> <p>그 외 작은 동자승, 작은 수녀님, 작은 목사님, 벽화 속 그림들.</p>

## 췌1. 선암 공원 내 작은 사찰 - 낮

작은 사찰을 배경으로,

엄지손가락만 한 동자승 열심히 빗자루 질을 하고 있다.

머리위로 비치는 햇빛이 너무 눈부시다는 듯 머리에 흐르는 땀을 닦고 하늘을 바라보는 동자승, 동자승이 보는 하늘 옆 나무들 너무나 거대해서 동자승이 작은 것이 드러난다.

동자승 어휴, 쓸어도, 쓸어도 끝이 없네.

동자승 앞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음료수 캔 하나.

동자승, 깜짝 놀라 몸을 굴려 피한다.

동자승 헉! 십년감수 했네. 도대체 왜 이렇게 아무 생각도 없이 쓰레기를 버리는 거야? 그래도 여긴 명색이 사찰 앞마당인데.

동자승, 발로 음료수 캔을 걷어차 보지만, 자기 발만 아픈지 발을 잡고 떼굴떼굴 구른다.

동자승 아이고, 내 발, 나 죽는다.

그때 허리를 굽혀 음료수 캔을 줍는 누군가의 손.

동자승 올려다보면 햇빛 때문인지 거대한 크기의 소녀의 실루엣만이 보인다.

동자승 애, 또 왔네.

## 췌2. 선암 공원 내 작은 성당 - 낮

성당 앞에서 사람들의 발걸음을 보고 있는 수녀님.

동자승, 멀리서 수녀님을 발견하고 뛰어 온다.

동자승 수녀님!

수녀님 아, 동자승이 여기는 무슨 일로 왔어요?

동자승 아니, 오늘도 소망이 여기 들렸지요?

수녀님 (웃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동자승 지금 저희 사찰에서 나가서요.

수녀님 그럼 지금쯤은 교회에 가 계시겠네요.

동자승 예고, 할아버지 때문에 매일 찾아오는 건 좋은데, 절이면 절이고, 성당이면 성당이지, 교회까지 세군데 다 돌아다니는 건 뭔지, 참.

수녀님 그만큼 간절하기 때문이겠지요.

동자승 (웃으며) 그래서, 우리가 도와줄 수 없을까요?

수녀님 (약간 놀라며) 우리가요?

동자승, 수녀님의 당황한 얼굴을 보고 힘차게 고개를 끄덕인다.

### 썸3. 작은 교회 안 - 낮

사람 한명이 딱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작은 교회 내부.  
아직 어린 소망이라 그런지 작은 교회 내부가 조금 큼직해 보인다.  
무릎을 꿇고 앉아 기도를 하고 있는 소망이의 모습.

소망        예수님도 저희 할아버지가 꼭 건강해지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저랑 아주 오래오래 함께 살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눈을 꼭 감고 있는 소망이를 교회 안 한쪽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작디작은 목사님의 모습이 보인다.

곤란한 표정으로 머리를 긁적이는 목사님.

소망이, 목사님의 표정과는 전혀 상관없이 눈을 꼭 감고 두 손을 모아 열심히 기도를 한다.  
결국 한숨을 내쉬고는 교회 밖으로 나가는 목사님의 모습.

### 썸4. 작은 교회 앞 - 낮

교회 밖으로 나온 목사님,  
자신을 기다린 듯, 교회 앞에 서 있는 수녀님과 동자승을 보고 깜짝 놀란다.

목사님        수녀님, 그리고 동자승까지, 무슨 일로 여기에 오셨습니까?

수녀님        그게 지금 교회 안에 있는 게 소망이지요?

목사님        (한숨을 푹 쉬고) 네. 매일 오는 데 정말 안쓰러워서.

동자승        (웃으며) 그럼 우리가 도와주면 되지요.

목사님        우리가요?

수녀님        (고개를 끄덕이며) 예, 그것 때문에 할 이야기가 있어서요.

목사님, 수녀님과 동자승을 번갈아 돌아본다.

### 썸5. title. 우리 동네에는.....

산뜻한 분위기의 음악이 흐르고,  
천천히 걸어가는 빨간 구두를 신은 소망이의 발걸음 옆으로,  
흘러가듯 보이는 신화마을의 아기자기한 벽화들.  
벽화들과 장식물들, 소망이의 움직임에 따라 인사하듯 천천히 움직이지만,  
소망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굽은 골목길 사이를 걸어간다.  
소망이가 나비가 그려진 집으로 들어가면,  
화면 푸른 하늘을 비추면서 타이틀 떠오른다.

우리 동네에는.....

## 썸6. 소망의 집, 방 안- 낮

단칸방으로 되어 있는 소망의 집.

세간이라고는 천으로 된 옷장 하나와 낡은 TV 한대뿐이다.

방 한 쪽에 이불 안에 누워 잔기침을 하고 있는 소망이 할아버지의 모습이 보인다.

미닫이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오는 소망.

소망 할아버지, 저 왔어요.

할아버지 (애써 웃으며 몸을 일으킨다) 우리 강아지 어디 갔다 이제 오누.

소망 에이, 누워 계시라니까. (할아버지를 눕히고) 그냥 공원에 갔다 왔지.

할아버지 공원? 공원에는 왜?

소망 친구들이랑 노느라고. 할아버지는 빨리 나를 생각만 하시라니까요. 그래야 나랑 놀아주지.

할아버지 (웃다가 잔기침을 한다) 그래, 얼른 일어나서 우리 소망이랑 재미있는 데도 놀러가고 그러자꾸나.

소망 야호! 약속했어요? 할아버지.

밝게 웃는 소망이의 얼굴을 보면서도 씩씩한 웃음을 보이는 할아버지의 얼굴.

## 썸7. 신화마을 - 낮

마을 입구, 기분 나쁜 모습의 역신 꾸물거리며 안으로 들어선다.

마을 벽화 속의 그림들, 역신이 지나갈 때 마다 두려움에 떨며 몸을 숨긴다.

낡은 집 문 위에 자리한 강아지 모양 동상이 역신을 쫓으려는 듯 쾅쾅거리며 쫓기 시작한다.

역신 슬쩍 강아지 동상을 건드리면, 깨갱거리며 다시 동상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그때, 역신의 앞을 막아서는 하늘을 나는 고래 그림.

빠우! 소리를 내며 역신을 위협하지만, 역신 땅 아래로 꺼지듯 사라져 고래를 지나친다.

나비가 그려진 집 앞에서 멈춰서는 역신.

천천히 소망이의 집 안으로 들어간다.

## 썸8. 선암 호수 공원, 호수가 - 낮

호수 주변에 자라난 들꽃과 풀들 사이로 몸을 드러내는 작은 동자승과 수녀님, 목사님.

목사님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 해봐요. 우리가 소망이를 돕는다고요?

수녀님 네. 혼자 힘만으로는 힘들지도 모르지만 서로 힘을 모으면 도울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목사님 (웃으며) 그래요? 그렇다면 나도 무엇이든 돕도록 하죠. 사실 매일같이 오는 소망이가 얼마나 신경이 쓰였는지 모른다고요.

수녀님 (웃으며 동자승과 고개를 끄덕인다)

목사님 근데 이런 기특한 생각은 누가 한 거예요? 수녀님이?

수녀님 (고개를 저으며) 동자승이에요.

동자승 (쑥스러운 듯 웃으며) 저 혼자라면 엄두도 내지 못했을걸요. 그래도 두 분이 도와주신다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목사님 그런데 어떻게 도우려고요?

수녀님 그건 이따가 해가 지고 나면 모여서 이야기 하죠.

동자승 그러면 나중에 배요!

동자승, 웃으며 풀 잎 하나를 밟고 뛰어 오른다.

### 췌9. 소망이네 집, 안방 - 낮

지친 듯 잠에 빠져 있는 소망이.

할아버지 일어나 앉아 소망이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곤히 자고 있는 소망이를 보며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는 할아버지.

할아버지 가여운 것, 내가 없으면 이렇게 어린 거 혼자 어떻게 살라고. 하늘도 참 무심하시지.

소망 (잠꼬대를 하며) 할아버지 배고파.

할아버지 (웃으며 소망이를 쓰다듬는다) 오냐. 이 할아버지가 소망이 일어나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 만들어 놓으마.

혹시나 잠이 든 소망이가 깰까 조심스럽게 방 밖으로 나서는 할아버지.

소망이, 아무 것도 모른 채 행복한 표정으로 꿈을 꾸고 있다.

소망 (웃으며 잠꼬대를 한다) 맛있다. 해해.

### 췌10. 소망이네 집, 부엌 - 낮

문과 연결된 부엌으로 나가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 할아버지.

달그락 거리며 식기 들을 씻기 시작한다.

그때, 갑자기 문밖으로 고개를 들이미는 역신의 모습.

갑작스런 역신의 등장에 문 쪽을 돌아보는 할아버지.

할아버지 왜 이렇게 한기가 드누.

할아버지, 역신이 보이지 않는 듯 다시 밥 준비를 한다.

역신, 천천히 할아버지의 뒤로 돌아간다.

아무것도 모른 채, 설거지를 하는 할아버지를 물끄러미 내려다보는 역신,  
갑자기 빠른 속도로 할아버지를 덮친다.  
썩그랑 소리와 함께 바닥으로 떨어지는 밥그릇.

### 썩11. 신화마을 벽화들 - 낮

썩그랑 소리가 들리자 거세게 짓기 시작하는 강아지 동상.  
고래들도 정신없이 벽 안을 돌아다니고, 오줌 싸는 어린이의 그림은 눈물을 툭툭 떨어뜨린다.  
참새 그림들, 무언가 쑥덕이더니, 한 마리 벽에서 튀어나와 멀리 날아가기 시작한다.  
참새를 보고 부탁한다는 듯 울음소리를 내는 하늘을 나는 고래.

### 썩12. 소망이네 집, 안방 - 낮

방에 잠들어 있는 소망.  
밖에 할아버지에게 어떤 일이 생긴 지 모른 채 단잠을 계속 자고 있다.  
소망 (잠꼬대) 할아버지, 나랑 오래 오래 행복하게 살아야 돼.

닫힌 창호지 문 밖으로 흔들거리고 있는 역신의 그림자가 보인다.

### 썩13. 선암 호수 공원 - 낮

하늘 위를 날아가는 벽화 속에서 나온 참새.  
선암 공원을 발견하고는 빠른 속도로 내려간다.  
참새, 작은 사찰을 발견하고 내려앉으면,  
커다란 쓰레기를 치우려 안간힘을 쓰던 동자승,  
참새를 발견하고 놀라 넘어진다.

동자승 으악, 난 먹는 게 아니야! (반응이 없자 천천히 참새를 살피고는) 넌 혹시 신화마을에 사는 참새 그림이 아니니?  
참새 (고개를 끄덕이며) 짹.  
동자승 본래 너희는 사는 벽화 속에서 잘 나오지 않을 텐데, 여기까지 무슨 일로 온 거야?  
참새 (다급히) 짹, 짹, 짹!  
동자승 뭐? 그게 정말이야?

동자승, 참새의 말을 듣고 눈이 커진다.

### 썩14. 작은 교회 안 - 낮

교회 안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는 작은 목사님.  
창문 밖으로 참새우는 소리가 들린다.

목사님      웬 참새 소리가?  
동자승      (소리만) 목사님!!  
목사님      이젠 동자승 목소리인데?

창문 하나가 열리고 참새에 타고 있던 동자승이 안으로 뛰어 들어온다.

동자승      소식 들으셨어요?  
목사님      무슨 소리 말입니까?  
동자승      소망이네, 할아버지가 쓰러지셨대요.  
목사님      그게 정말입니까?  
동자승      (고개를 끄덕이면)  
목사님      (다시 급하게 상자를 뒤적인다)  
동자승      뭐 하세요? 빨리 가서 도와야지요!  
목사님      아, 찾았다. (붉은 구슬을 내밀며) 이 구슬을 가지고 빨리 수녀님께 가세요. 다  
             같이 움직일 시간이 없으니까요.

동자승, 열떨떨한 얼굴로 구슬을 받아들고 창문 위로 뛰어 오른다.

동자승      감사합니다. 그럼 나중에 뵈게요.

동자승, 참새를 타고 다시 떠난다.

목사님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으며) 부디 도와주시길.

### 썸15. 작은 성당 앞 - 낮

참새를 타고 작은 성당 앞으로 내려오는 동자승.  
수녀님, 동자승이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앞에 나와 동자승을 맞이한다.

동자승      (다급하게) 수녀님, 들으셨어요?  
수녀님      (웃으며) 예,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얀 구슬을 내밀며) 여기, 이것을 가지고  
             가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동자승      (놀라서)저 혼자 가라고요?  
수녀님      예. 함께 나갈 준비를 하려면 시간이 걸리는 데, 상황이 급하니 어쩔 수가 없  
             네요.  
동자승      그래도.....  
수녀님      (동자승을 보고 웃으며) 잘 해내실 수 있을 겁니다.  
동자승      (고민하다 웃고는) 네. 해 볼게요.

수녀님 참, 공원에서 나가려면 녹색 구슬이 필요하답니다.  
 동자승 녹색 구슬이요? 그건 어디에?  
 수녀님 그건 전에 계시던 큰 스님이 아마 사찰 앞마당에 묻어두었다고 들었던 거 같은데.....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동자승 그거라면 혹시? (동자승 품안을 뒤져 녹색구슬을 꺼낸다) 이거 말이에요?  
 수녀님 (약간 놀란 표정으로) 예. 아마도 그게 맞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동자승 (웃으며) 전에 마당을 쓸다 주었어요. 전 그냥 예쁘게 생겨서 간직하고 있었는데.  
 수녀님 이것도 다 뜻이 있으시기에 준비가 되어있는 것이겠지요. 서두르세요. 소망이네 할아버지가 위험합니다.  
 동자승 (참새의 등에 올라타며) 그럼 다녀올게요.

동자승을 태운 참새, 하늘 높이 날아오른다.  
 무언가에 막힌 듯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참새.  
 동자승, 품에서 녹색 구슬을 꺼내 들면, 참새를 막고 있던 힘이 없어진다.  
 수녀님, 참새가 멀리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며 눈을 감고 기도를 드린다.

수녀님 부디 저들을 지켜 주세요.

#### 원16. 소망이네 집, 안방 - 밤

방 창문으로 들어오는 주황색 빛이 저녁임을 보여준다.  
 괴로운 표정으로 잠꼬대를 하고 있는 소망이의 모습.

소망 (잠꼬대) 할아버지, 가지마! 가지마!

통통 부은 눈으로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는 소망.  
 소망, 눈가에 번진 눈물을 닦으며 주위를 둘러본다.

소망 (할아버지가 없다는 사실을 그제야 인식하고) 할아버지?

소망, 천천히 일어나서 창호지 문을 열고 방 밖으로 나간다.

소망 (소리만, 비명처럼) 할아버지!!

#### 원17. 소망이네 집, 부엌 - 저녁

부엌에 쓰러져있는 할아버지를 붙잡고 울고 있는 소망이의 모습.  
 역신, 소망이네 할아버지 몸을 덮고 흔들거리지만, 소망이의 눈에는 안 보인다.  
 그때, 부엌 밖으로 내려앉는 참새.  
 참새, 뚝뚝 거리며 부엌 안으로 들어온다.



소망 할아버지 일어나! 응? 나랑 놀러가기로 했잖아? 응?  
 참새 짹.  
 소망 (참새 소리에 놀라 내려다보면)  
 동자승 (참새 등에서 뛰어내려) 소망아!  
 소망 (동자승이 안 보이는 듯 주위를 둘러보며) 누구세요?  
 동자승 나야, 나! 참새 아래에 있다고!  
 소망 (참새 옆에 있는 작은 동자승을 발견하고 놀라) 너, 너는 누구야?  
 동자승 (웃으며) 왜 이래? 매일 절이며 교회, 성당 돌아다니며 할아버지 도와달라고 말한 게 누군데?  
 소망 그, 그러면.....  
 동자승 (고개를 끄덕이고) 응. 도와주러 왔어.

소망,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아 버린다.

동자승, 소망이 뒤로 보이는 할아버지와 역신을 바라보고 걸어간다.

동자승 다행이 너무 늦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한다?  
 역신 (기분 나쁜 소리로 울어대다) 사라져라. 이 인간은 내꺼다.  
 동자승 (역신의 기운에 밀려 인상을 찌푸리고) 어, 어찌지?  
 소망 (상황을 몰라 두리번거리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동자승 아, 소망이 넌 이게 안 보이겠구나. 잠깐만. (염주를 돌리며 주문을 외운다)  
 자, 눈아 뜨여라!

동자승의 손에서 나온 빛이 소망이의 눈에 머물면,

소망, 그제야 역신의 모습이 보이면서 겁을 집어 먹는다.

소망 엄마야! 저게 뭐야?  
 동자승 저건 역신인데, 질병을 옮기는 나쁜 놈이지. 지금 너희 할아버지가 위험한 것도 저 놈 때문이야.  
 소망 (울며) 부탁이야, 우리 할아버지를 도와줘.  
 동자승 (땀을 흘리며) 그런데 저 역신의 힘이 너무 강해서.....  
 소망 그럼 어떻게 해? 누가, 우리 할아버지 좀.....  
 동자승 미안, 내가 아니라 다른 분들이라면 어떻게 됐을지도.....(구슬이 기억나) 아, 참!

동자승, 품에서 구슬을 꺼내면 하얀 구슬 빛이 나며 할아버지를 향해 날아간다.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서는 역신.

소망이 다시 할아버지를 보면 투명한 막에 둘러싸여 편안한 모습으로 잠들어 있다.

역신 무슨 짓을 한 거야? 우어 어어! (투명한 막을 공격한다) 이까짓 거 얼마 안 가 부숴 줄 테다.  
 동자승 됐다. 수녀님이 주신 구슬이 할아버지를 보호하고 있어.

소망 (웃으며) 그럼 우리 할아버지는 이제 무사하신거야?  
 동자승 아니, 이상태로라면 언젠가는 역신이 저 보호막을 깨고 말겠지.  
 소망 그러면 어떻게 해?  
 동자승 (붉은색 구슬을 보며) 이게 어떻게 쓰일지 모르는데. 일단 밖으로 나가자!  
 소망 밖으로?  
 동자승 응, 여기서는 역신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동자승, 참새에 올라타 나가면, 소망 동자승을 따라 부엌을 나간다.

역신 (보호막을 계속 두드리며) 가만 두지 않겠다!

## 췌18. 신화마을, 소망이의 집 앞 - 밤

밖으로 나오는 동자승, 소망이가 나온 것을 확인한다.  
 붉은 구슬을 바라보다 바닥으로 던지는 동자승.

동자승 도와주세요!

바닥에 떨어진 붉은 구슬 아무런 변화도 없이 데굴데굴 굴러간다.  
 마침 해가 천천히 지며 어두워진다.

동자승 어? 이렇게 쓰는 게 아닌가? 아무리 급해도 사용법은 물어보는 건데.  
 소망 (실망하며)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동자승 미, 미안.

그때, 붉은 빛을 뿜어대는 붉은 구슬.  
 붉은 빛, 천천히 벽으로 스며든다.  
 벽화 속에 있는 나비, 벽에서 나와 소망의 앞에 내려앉는다.

소망 세상에, 이게 무슨 조화야?  
 동자승 아, 이런 힘이 있었구나.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지?

그때, 벽 안에 갇혀 있던 오줌 싸는 꼬마 아이, 동자승에게 말을 건다.

꼬마 처용암으로 가!  
 동자승 처용암?  
 강아지동상 (갑자기 고개를 돌려) 처용의 힘이라면 역신을 막을 수 있지.  
 소망 그게 정말이야?  
 강아지동상 그럼, 물론이지. 멍! 소망아, 늘 도와주고 싶었지만 멍! 내 힘으로는 감히 도울 수가 없었어. 멍! 붉은 구슬 덕분에 이렇게 조금이나마 도와줘서 기쁘구나. 멍! 멍!

소망            고마워, 정말 고마워!  
 꼬마            조심해서 다녀와! 여기는 우리가 어떻게든 해 볼게.  
 동자승        그럼, 모두들 부탁해, 소망아! 가자, 처용암으로!

소망, 천천히 고개를 끄덕인다.  
 빨리 타라는 듯 날개를 펴려이는 나비의 위에 조심스럽게 올라타는 소망.  
 나비와 참새, 검은 하늘 위로 날아오른다.

### 썸19. 하늘 위 - 밤

나비를 타고 날아가는 소망과, 그 옆에 참새를 타고 날아가는 동자승.

동자승        소망이, 너 처용을 알아?  
 소망            아니?  
 동자승        에고, 난 그 사람 좀 만나기 싫은데.  
 소망            왜?  
 동자승        그게, 좀 괴팍한데다 무섭게 생겨서. 너도 보면 진짜 겁이 날걸?  
 소망            (표정을 굳히며) 난, 그게 누구든 우리 할아버지를 낫게 할 수만 있다면 만날 거야!  
 동자승        그럼! 그래야지. 좀 더 빨리 가자, 참새야.

동자승의 말에 더욱 속도를 붙여 날아가는 참새와 나비.

### 썸20. 처용암 건너편 - 밤

처용암 건너편에 내려서는 나비와 참새.

동자승        처용암은, 저 건너편 아니야? 왜 여기서 멈추는 거야?  
 나비            (아무 말 없이 날개를 퍼덕인다)  
 소망            (나비의 등에서 내리면서)나비야, 여기까지 데려다 줘서 고마워.  
 동자승        어찌려고?  
 소망            어떻게든 해 봐야지.  
 동자승        (나비를 보며) 도와줄 거면 끝까지 도와줘야지. 얼마 멀지도 않은데.  
 참새            (동자승을 보고) 짹! 짹!  
 동자승        뭐? 그래? (소망을 보며) 나비는 날개가 젖어서 바다 위를 날지 못한대.  
 소망            (나비의 날개를 쓰다듬으며) 고마워, 나비야.  
 동자승        이제 진짜 어떻게 하지?  
 소망            어떻게든 해야지. (웃으며) 나 수영 배운 적 있거든.  
 동자승        안 돼! 위험하게!

그때, 물거품을 일으키며 해변에 올라오는 고래 한 마리.

소망            세상에나! 동자승아 저것 봐, 고래야!

고래            처용암으로는 내가 데려다주마, 소망아.

소망            저를 아세요?

고래            그럼, 나는 너희 앞집에 그려진 고래 아저씨란다. 바다를 건너게 해 주기 위해 이곳으로 와 있었지.

동자승과 소망, 서로 마주보며 웃는다.

고래            서둘러, 금방 처용암까지 데리고 가 주마!

고래의 등 위로 올라타는 동자승과 소망.

### 썸21. 처용암 물가 - 밤

물살을 가르며 처용암으로 소망이를 태워다 주는 고래.

동자승, 참새를 타고 고래 옆을 따라온다.

소망, 고래가 처용암에 닿자 살짝 점프해서 바위위에 올라선다.

소망            (무릎을 꿇어 고래와 눈을 맞추고) 고래 아저씨, 고맙습니다.

고래            (호탕하게 웃으며) 다 네가 평소에 착한 아이였기에 이렇게 도와주는 거지. 처용님을 만나거든 큰 소리로 다시 나를 부르거라.

소망            네.

고래, 천천히 물 아래로 가라앉는다.

참새를 탄 동자승, 소망의 주위를 뱅뱅 돌며 날아다닌다.

동자승        얼른 가자고, 보호막이 언제까지 버틸지 모르는 거니까 말이야.

소망            (서둘러 일어나) 응!

소망, 험난한 바위 사이를 힘들게 올라간다.

### 썸22. 소망이네 집, 부엌 - 밤

역신, 아직도 소망이 할아버지를 감싸고 있는 투명한 막에 머리를 부딪치고 있다.

역신            (화가 난 목소리) 이까짓 걸로 감히 이 역신님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으냐!

다시 거칠게 막에 머리를 부딪치는 역신의 모습.

막, 조금씩 투명해지며 한쪽에 살짝 금이 간다.

문 밖으로 오줌 누는 아이 그림이 불안한 표정으로 빼꼼 고개를 내밀어 보고 있다.

### 썸23. 처용암 나무 아래 - 밤

돌 섬 한 가운데 자라난 몇 그루의 커다란 나무 중앙.

붉고 푸른 불빛들이 나무 아래를 춤추듯 돌아다니면,

젊고 멋진 모습의 처용, 노래를 부르며 처용무를 추고 있다.

처용 (처용무를 추며) 서울 밝은 달밤에 밤늦도록 놀고 지내다가 들어와 자리를 보니 다리가 넷이로구나. 둘은 내 것이지만 둘은 누구의 것인가? 본디 내 것이지만 빼앗긴 것을 어찌하리.

처용의 춤사위가 끝날 때 째,  
나무 뒤에서 나오는 소망이와 참새를 탄 동자승.  
소망, 처용의 화려한 춤 솜씨에 넋이 나간 듯 처용을 바라보고 있다.

처용 (얼굴이 귀신처럼 변하며) 누구냐?  
소망 (처용을 보고 너무 놀라 딸꾹질을 하면)  
동자승 (쩍새게 처용의 앞으로 나와) 안녕하세요?  
처용 넌, 동자승이 아니냐?  
동자승 하하, 네.  
처용 사찰을 지키고 있을 네가 여기는 무슨 일이냐? 그리고 이 인간 여자아이는 무엇이고?  
소망 (계속 딸꾹질을 하면)  
동자승 사실은 처용님께 부탁이 있어서.....  
처용 부탁?  
동자승 예. 이 아이의 할아버지에게 역신이 들었는데, 그걸 좀 물리쳐 주셨으면 해서요.  
처용 흥, 웃기는 소리로다. 본디 역신은 나와 약조하기로 내 얼굴을 붙여놓은 집에는 절대 발을 들이지 않겠다 하였거늘, 시간이 지나 사람들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더 이상 내 얼굴을 붙이지 않아 이런 사단이 난 것이 아니더냐?  
동자승 (골치 아픈 표정으로)예, 그렇기는 하지만.....  
처용 하지만?  
동자승 (망설이다) 요즘 세상에 그런 걸 누가 믿어요.  
처용 (심통이 난 표정으로 돌아서며) 그래, 그러니 내 알바 아니다. 돌아가거라.  
소망 저희, 딸꾹, 할아버지를, 딸꾹 도와주세요.  
처용 (고개를 돌려) 내가 왜 그래야 하지?  
소망 (눈물을 흘리며) 누구든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야 하니까요. 저같이 어린 아이도 힘든 사람을 보면 돕는데, 그건 당연한 일이잖아요.  
처용 (이를 꼭 깨물고) 맹랑한 것, 안 도와주었다가는 내가 너 만한 꼬맹이만도 못한 사람이 되는 게로구나?

처용, 소망의 얼굴을 보다 몸을 보면, 여기저기 까진 상처들이 가득하다.  
동자승, 이겼다는 표정으로 소망을 바라보며 웃는다.

처용 (인상을 찌푸리며) 좋다. 내 도와주도록 할 테니, 그리로 가도록 하자.  
동자승 됐어! 처용님이라면 역신도 물리날 거야.

소망 (긴장이 풀린 표정으로 웃고는) 감사합니다, 처용님.  
 처용 흥! 그런 말도 할 시간이 없을 텐데?  
 동자승 (아차 싶은) 맞다! 서둘러야 돼! 난 먼저 가서 고래 아저씨를 불러 놓을게.

동자승, 아래로 빨리 날아간다.

소망, 발을 절뚝이며 동자승을 따라가려 하면,  
 못마땅한 표정의 처용, 소망이의 몸을 붙들고 높이 날아오른다.  
 소망, 처용의 손에 들려 빠른 속도로 나무 사이를 뚫고 해안가로 다가간다.

#### 썸24. 처용암 물가 - 밤

물가에 먼저 날아와 고래를 부르고 있는 동자승

동자승 고래님! 고래님! (고개를 갸웃 거리다) 고래님! 왜 안 나오시지?

그때, 동자승의 옆으로 뛰어 내리는 처용과, 그의 손에 들려 있는 소망이.  
 처용, 답답한 표정으로 동자승을 바라본다.

처용 그렇게 작은 목소리로 불려서야 물 안에서 들리겠냐?  
 동자승 (민망한 표정으로) 이게 제일 크게 낸 소린데?  
 처용 (크게) 이놈! 고래야!

처용의 말에 천천히 물 안에서 나오는 고래.

처용 (나온 고래를 보더니 피식 웃고는) 너는 알아서 집으로 돌아가도록 해라. 내가 친히 이 꼬맹이를 데리고 갈 테니 말이다.  
 소망 어떻게 가시려고요? 빨리 가야 하는데.....  
 처용 걱정마라! 내가 바로 동해 용왕의 아들 처용이다!

처용, 눈을 감고 주문을 외우면, 몸에서 빛이 나기 시작한다.  
 눈부신 빛에 소망과 동자승 등이 잠시 눈을 감으면,  
 처용은 사라지고 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금빛 용 한 마리가 보인다.

소망 (너무 놀라) 이, 이게 무슨.....  
 처용 오랜만에 변신하니 어색하구만, 얼른 타라. 집까지 눈 깜짝할 새에 데려다 줄 테니.

소망, 조심스럽게 용으로 변한 처용의 등에 올라타면,  
 동자승과 참새도 소망이의 어깨에 내려앉는다.  
 순식간에 섬을 몇 바퀴 돌고는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금빛 용.

#### 썸25. 하늘 - 밤

금빛용으로 변한 처용의 갈기를 잡고 있는 소망.  
빠른 속도 때문에, 소망 눈을 질끈 감는다.  
처용, 울산의 전경을 내려다보며 감탄한다.

처용           이거 내가 처용암에만 있는 동안 세상이 너무도 변했구나! 용궁이 부럽지 않겠어! (눈을 가늘게 뜨고는) 꼭 잡아라, 더 빨리 가야 할 것 같으니.

빠른 속도로 울산의 하늘을 날아가는 처용.

## 썸26. 소망이네 집, 부엌 - 밤

역신, 괴상한 소리를 내며 계속 소망이의 할아버지를 감싸고 있는 막을 두드린다.  
막, 아까와는 달리 안 보일정도로 투명해져 여기 저기 금이 가 있다.

역신           크크, 이제 끝이다!

역신, 강한 힘으로 막에 몸을 부딪치면 유리처럼 깨져버리는 투명한 막.  
그때, 빠른 속도로 검은 그림자 몇이 부엌 안에 들어온다.

역신           (자신의 앞을 가로막는 것들을 보며) 뭐냐? 너희들은?

역신이 내려다보면, 할아버지를 감싸며 지키는 강아지 동상과 오줌 싸는 꼬마 그림.

강아지동상   우리도 더 이상은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아! 멍!

역신           왜? 너희랑 이 늙은이랑은 아무런 상관도 없지 않느냐!

꼬마           상관이 왜 없어? 우린 소망이랑 할아버지를 지키겠다고 약속 했는걸?

역신           이런, 성가신! 너희 따위가 나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으냐?

강아지 동상과 오줌 싸는 꼬마 그림, 서로를 보고는 고개를 끄덕인다.

강아지동상   막지는 못하더라도!

꼬마           소망이가 올 때까지는 지킨다!

역신, 화가 난 듯 몸을 부르르 떨다 강아지 동상과 꼬마를 향해 몸을 날린다.

## 썸27. 소망이네 마당 - 밤

금빛용으로 변한 처용, 소망이네 집 마당으로 내려오면,  
소망이와 참새, 동자승, 처용의 등에서 내린다.  
잠시 금빛이 퍼지고, 순식간에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변하는 처용.

처용       여기가 너희 집이냐?  
 소망       네. 할아버지는 부엌에.....  
 처용       안 그래도 역신의 기운이 강하게 느껴지는구나!  
 강아지동상 (소리만) 깨갱!!

그때, 마당으로 튕겨지듯 나오는 강아지 동상과 오줌 싸는 꼬마 그림.  
 바닥에 쓰러진 강아지 동상을 보고 달려가는 소망.

소망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강아지동상 (처용을 보고) 다행이다, 시간 안에 와서.....

의식을 잃고 몸을 축 늘어뜨리는 강아지 동상.

소망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며) 고마워, 정말 고마워.  
 처용       (인상을 찌푸리며) 어차피 애네 죽지도 않아. 이러고 있지 말고, 빨리 들어가자. 빨리 역신을 쫓아야 나도 처용암으로 돌아갈 것 아니냐?

처용, 부엌으로 먼저 들어선다.  
 참새를 타고 소망의 옆에 날아와 위로하듯 주위를 도는 동자승.  
 소망, 굳게 입을 다물고 처용이 들어간 부엌 안으로 들어간다.

## 췌28. 소망이네 집, 부엌 - 밤

역신, 천천히 쓰러져 있는 소망이 할아버지의 몸을 덮어간다.  
 그때, 안으로 들어오는 처용과 소망.

역신       너희는 또 뭐냐?  
 처용       (웃으며) 아무리 오랜만이라도 그렇지 내 얼굴을 잊었는가?  
 역신       (가만히 처용을 살피다) 너, 넌?  
 처용       그래, 날세.  
 역신       흥! 처용암에서 안 나온다고 알고 있었는데, 여긴 무슨 일이나?  
 처용       (흘끔 소망이의 겁먹은 표정을 본다) 그건 그렇고, 꼭 그런 징그러운 모습으로 있어야하나? 이야기하기 불편하게시리.

처용의 말에 검은 기운을 풍기는 역신,  
 잠시 후, 추악하게 생긴 노인의 모습으로 변한 역신이 나타난다.

역신       무슨 이야기를 하자는 말인가?  
 처용       (웃으며) 원 성격도 급하기는, 일단 저 인간은 방으로 치우고 이야기를 나누지.



처용, 손을 들어 올리면, 소망이 할아버지의 몸이 떠오른다.  
처용의 손짓을 따라 방으로 옮겨지는 할아버지의 몸.

역신 (화를 내며) 이게 무슨 짓인가? 그대가 그 대단한 처용이라 해도 이렇게 내 일을 이렇게 방해하고도 무사할 성 싶은가?  
처용 (소망이에게 눈짓을 보내고) 들어가 봐라.

소망, 처용에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급히 방으로 들어간다.

역신 (화가 나) 처용!

역신의 위협에도 여유로운 웃음을 지어보이는 처용의 모습.

### 썸29. 소망이네 집, 안방 - 밤

방으로 들어와 할아버지를 살펴보는 소망.  
할아버지, 편안한 표정으로 잠이 들어 있다.

소망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어느새 소망의 옆으로 참새를 탄 동자승이 날아 들어온다.

동자승 할아버지는 괜찮으셔?  
소망 (웃으며) 응, 다 네 덕분이야.  
동자승 내가 한 게 뭐 있다고, 이제 처용님이 역신을 쫓아내기만 하면 되는데.

그때, 문 밖에서 들려오는 시끄러운 소리,  
동자승과 소망,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하고 밖으로 뛰어 나간다.

### 썸30. 소망이네 마당 - 밤

주춤거리며 물러나는 처용.  
그런 처용을 위협하듯 검은 기운을 내뿜는 역신.  
부엌에서 나온 소망이와 동자승 처용의 뒤로 물러난다.

처용 (귀신같은 얼굴로 변하며) 이게 무슨 짓인가!  
역신 내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왜 이곳에서 물러나야하지?  
처용 흥! 잊었나, 그대가 예전 나와 약속하기로 내 얼굴이 그려진 집에는 절대 들어 서지 않기로 했던 것을?  
역신 (비열하게 웃으며) 그래, 그랬지.

처용        그런데 어찌 이런단 말인가?  
 역신        그런데 말이야, 나는 약속을 어긴 적이 없는데?  
 처용        뭐라?

강아지 동상과 오줌 싸는 꼬마 그림, 처용의 뒤에 있는 소망이를 지키려는 듯 소망이의 앞을 막는다.

역신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 처용 그대의 얼굴은 어디에도 붙어있지 않았다. 그런데 내가 언제 약속을 어겼단 말이지?  
 처용        지금 내가 여기에 있지 않는가?  
 역신        (웃으며) 그래, 그렇지. 그리고 내가 이 문을 나가는 순간 그대의 얼굴을 그려 넣기만 하면 그 옛날의 약속 때문에 나는 다시는 이곳으로 돌아오지 못하겠지. 그래서 나는 더더욱 여기를 나갈 수가 없다.  
 처용        왜 그렇게 저 노인에게 집착하는 것인가?  
 역신        내가 세상에 다시 나온 게 얼마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아. 그대와 그런 약속을 한 이후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용의 얼굴을 문에다 붙여놓았고, 그 덕에 난 어느 집에도 찾아가지 못하게 되었지.

소망, 역신이 말 하는 사이 천천히 처용의 옆으로 다가선다.

역신        그때 그 약속을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 그런데! 오랜만에 세상에 나오니 그대의 얼굴이 붙어 있는 집은 눈을 찢고 찾아봐도 없더군! (웃으며) 이제 더 이상 날 붙잡을 그 약속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지.

소망이 처용의 옆에 서자, 따라서 처용의 옆으로 다가서는 강아지 동상과 오줌 싸는 꼬마 그림.

처용        (소망이를 보고) 미안하구나, 쉽게 보낼 수는 없을 것 같아.  
 역신        하하하하. 그걸 이제야 알았나? 내 절대로 이곳을 그냥 떠나지는 않을 것이야.  
 처용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처용의 손이 역신을 위협하듯 금빛으로 물든다.

역신        좋아. 싸움이야 말로 이 역신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지!

역신, 처용과 마찬가지로 손을 검게 물들이면,  
 역신을 막아서는 강아지 동상과 오줌 싸는 꼬마 그림.

### 썸31. 소망이네 집, 안방 - 밤

괴로운 꿈을 꾸고 있는 지, 몸을 뒤척이는 소망이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옆 방바닥에서 꾸물거리며 나타나는 작은 역신.

역신            어리석은 처용아, 너는 빈껍데기랑 열심히 싸우거라, 그동안 이 노인은 내가 가져가마!

작은 역신, 할아버지의 몸에 천천히 스며들기 시작한다.

더욱 괴로운 표정으로 몸을 떠는 소망이 할아버지.

### 썸32. 소망이네 마당 - 밤

긴장된 표정으로 역신을 노려보고 있는 처용.

강아지 동상, 처용과 함께 기운을 돋우며 날카롭게 짖기 시작한다.

처용            너 혼자 우리 셋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가?

역신            (웃으며) 길고 짧은 건 대박야 아는 거지.

역신의 말에 몸을 날리기 위해 움츠리는 처용.

그때, 처용과 역신의 사이로 소망이가 뛰어든다.

소망            잠깐만요!

동자승        (소망의 주위로 날아들며) 소망아, 여기는 위험해!

소망            잠깐만요! 다들 싸우지 말아요.

처용            (기가 막힌 표정으로) 역신을 쫓아달라고 말한 건 네가 아니냐?

소망            네. 그래도 이렇게 싸우는 건 나쁜 일이잖아요.

역신            (소망이를 비웃듯) 흥, 할아버지를 살려야겠다는 생각은 잊어버렸나보지?

소망            (역신을 똑바로 바라보고) 아니요. 잊지 않았어요. 전 꼭 할아버지를 지킬 거예요.

역신            (호기심이 찬 눈으로) 너 같이 작은 꼬마아이가 무슨 힘으로? 오히려 처용의 도움을 받는 것이 그나마 작은 가망성이라도 있지 않겠느냐?

소망            그래도 싸우지 않고 해결하고 싶어요.

역신            호오~ 그래? 이미 내 기운의 반은 이미 너희 할아버지의 몸을 삼켜가고 있다. 처용과 나머지가 내 겉모습에 정신이 팔린 사이, 몰래 네 할아버지에게 내 분신을 보낸 것이지. 즉 처용이 나를 물리치든 말든, 이미 너희 할아버지는 내 손 안에 있다는 거지.

처용            (깜짝 놀라며) 이런 비겁한!

소망            (눈가가 파르르 떨리며) 할아버지를 살려주세요.

역신            내가 왜?

소망            (결심을 한 표정으로) 대신 저를 데리고 가세요.

역신            뭐라고?

소망            할아버지 대신 제가 역신님을 따라갈게요.

역신            넌 무섭지도 않으냐?

소망            무서워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아픈 건 더 무서워요. 부탁이에요. 차라리 저를 데리고 가세요.

역신, 멀뚱히 소망이를 내려다본다.  
소망이의 진실한 눈동자에 당황하는 역신의 표정.  
처용, 역신의 기세를 살피다 급히 집안으로 달려 들어간다.

역신            (분한 표정으로) 이! 이! (한숨을 내뿜다) 내가 졌다. 너도 네 할아버지도 데려가지 않고 암전히 물러가마.  
소망            (놀라서) 정말이세요?  
역신            흥! 착한 사람을 괴롭혔다가는 내가 혼난단 말이다!  
동자승          (소망이 주위를 날아다니며) 됐다, 됐어! 소망이 네가 해 낸 거야!

소망, 동자승에게 환한 웃음을 보인다.

### 췌33. 소망이네 집, 안 방- 밤

급하게 방 안으로 뛰어 들어오는 처용.  
할아버지 몸 위에 갇들어 있던 역신의 분신, 힘을 잃고 차츰 사그라진다.  
괴로워하던 할아버지 점차 편안한 모습으로 변하면,  
그 모습을 보고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거리는 처용.

### 췌34. 소망이네 마당 - 밤

기빠하던 소망, 천천히 사라져가는 역신에게 다가간다.

소망            (역신에게 인사하며) 고맙습니다, 역신님.  
역신            (기가 막힌) 넌 내가 밋지도 않느냐?  
소망            예. 결국 우리 할아버지를 돌려주셨잖아요.  
역신            (졌다는 표정으로 웃으며) 사실 옛날 내가 처용에게 그런 약속을 한 이유는 사람들이 처용을 본받아 넓은 마음을 지니기를 바랐기 때문이었다. 너를 보고 있으니 처용보다 네가 훨씬 훌륭하구나.  
소망            (급히 손사래를 치며) 아니에요.

밖으로 나온 처용, 사라지는 역신을 발견하고 다가온다.

처용            (웃으며) 참, 뒤에서 남의 험담이나 하고, 누가 역신 아니랄까봐.

역신 처용에게 웃음을 보이고 천천히 사라진다.

소망            (처용에게) 고맙습니다. 처용님.

처용 (당황하며) 내가 뭐 한 게 있어야지.  
 동자승 (웃으며) 그건 그래요.  
 처용 (얼굴을 붉히며) 뭐?  
 동자승 으악! (소망이의 뒤로 숨는다)  
 처용 (헛기침을 하고) 내가 뭐 해 준 것도 없으니, 소원이라도 있다면 말해 보거라.  
 소망 (놀라며) 네?  
 처용 이대로 가면 내 체면이 안 산단 말이다.  
 소망 (망설이다) 그럼, 정말 말해도 될까요?  
 처용 그래, 뭐든 말해보라니까!

소망, 처용에게 귓속말로 소원을 말한다.  
 소망이의 소원을 듣고 황당한 표정을 지어 보이는 처용.

### 썸35. 처용암 건너편 - 낮

수많은 관광객들 사이로 할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소망이의 모습.

할아버지 저기가 바로 처용암이란다. 신라시대 때, 용왕의 아들 처용의 이름을 딴 바위 지.  
 소망 (웃으며) 할아버지 몸은 괜찮아?  
 할아버지 응? (팔을 쪽 펴며) 이 할아버지야 아주 몸이 날아갈 것 같지! (갑자기 실망한 표정으로) 근데 이 할아버지 이야기가 그리 재미가 없냐?  
 소망 아니야, 재미있어.  
 할아버지 그래? 아무튼 그래서 그 처용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웃고 있는 소망이의 얼굴 뒤로, 천천히 줄어드는 할아버지의 목소리.

### 썸36. 처용암 - 낮

처용암 물가에 누워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처용.  
 처용, 기가 막힌 표정이다.  
 참새를 타고 처용의 주위를 날아다니는 동자승이 보인다.

처용 참, 그것도 소원이라고.  
 동자승 (궁금한) 소망이가 무슨 소원을 빌었는데요?  
 처용 (기가 막힌 듯 웃으며) 그게 말이다.....

처용 소망이가 소원을 빌던 때를 떠올린다.

### 썸37. 소망이네 마당 - 밤 (회상)

처용의 귀에 소원을 말하는 소망이의 모습.

소망 (귓속말)할아버지랑 처용암에 놀러가도 돼요?

처용, 소원을 다 듣고 황당한 표정으로 소망이를 바라본다.

처용 정말 그게 소원이냐?

소망 (고개를 끄덕이며) 네!

처용 꿈, 네 마음대로 해라.

정말 기쁜 표정으로 웃는 소망.

### 썸38. 처용암 - 낮

동자승, 처용의 말을 듣고 미소를 짓는다.

동자승 소망이답네요.

처용 그러게나 말이다. (귀찮다는 듯 드러누우며) 그런데 넌 집에 안 가냐?

동자승 이제 가야지요. 목사님이랑 수녀님도 기다리고 계실 테니까요.

처용 빨리 가라. 이 몸은 오랜 만에 움직였더니 피곤해서 좀 자야겠다.

동자승 그럼 다음에 뵈게요!

동자승, 참새를 타고 하늘로 날아오른다.

누워서 눈을 감던 처용, 뭔가 떠오른 듯 번쩍 눈을 뜬다.

처용 (놀라) 다음에 다시 온다고? 예잉, 오지 마! 귀찮단 말이야!

처용의 공허한 외침이 허공에 울려 퍼진다.

### 썸39. 신화마을 - 낮

화면 한쪽으로는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며,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신화마을 골목을 걸어가는 소망.

소망이가 걸어갈 때 마다 벽화 속의 그림들 윙크를 하거나, 손짓을 하는 등 인사를 보낸다.

소망, 벽화속의 그림들과 눈인사를 나누지만, 할아버지는 전혀 모른 채, 걸어간다.

나비가 그려진 소망이네 집으로 할아버지가 먼저 들어가면,

그제야 소망이를 보고 꼬리를 치는 강아지 동상.

소망이, 화면 밖 관객들을 향해 미소를 보이고는 집 안으로 들어간다.

-end-